#### 뉴스홈 | 최신기사

# <올림픽> 박태환, 1,500m서 '유종의 미' 거둔다

송고시간 | 2008-08-13 13:03











박성민 기자 기자페이지



박태환, 또하나의 메달을 위해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된다.

2008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자유형 200m 은메달까지 추가하며 최 고의 스타로 떠오른 박태환은 자유형 1,500m에서 다시 한번 파란을 준비하고 있다.

박태환은 15일 저녁 중국 베이징 국가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리는 수영 남자 자유형 1,500m 예선을 앞두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 박태환의 마지막 종목이다.



예선은 모두 37명이 출전해 5개 조로 나뉘어 치러진다. 박태환은 3조 6레인을 배정받았다. 라이벌로 꼽혀 왔던 4레인 유리 프릴루코프(러시아)와 함께 레이스를 펼치게 됐다.

작년 3월 호주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마테우츠 사브 리모비츠(폴란드)가 4조 4레인에서 뛰게 됐고, 5조 4레인은 올 해 세계 랭킹 1위인 피터 밴더케이(미국)가 배정받았다. 밴더케 이 바로 옆인 5레인에서 이 종목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그랜트 해켓(호주)이 달린다.

금메달과 은메달을 잇따라 따낸 박태환의 기세는 대단하다. 탄력 을 최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추가 메달도 가능할 전망 이다.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신'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박태환의 최고 기록은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낸 14분55초03의 아시아신기록. 이후 박태환은 2차례 더 1,500m에 도전했지만 자기 기록을 깨지는 못했다.

2개월의 단기간 집중 훈련 후 출전한 세계대회에서는 15분03초62로 힘겹게 물살을 갈라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또 같은해 8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일본국제수영대회에서는 14분58초43으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자기 기록을 따라잡지 못했다.

이후 박태환은 11월 호주와 스웨덴, 독일에서 이어진 국제수영연맹(FINA) 경영월드컵 시리즈에서 1,500m를 3차례 뛰어 모두 1위를 차지했지만 대회가 쇼트코스(25m) 수영장에서 진행돼 큰 의미가 없었다.

박태환은 올림픽 마지막 경기의 목표를 '자기 기록 단축'이라 밝히며 메달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금메달에 은메달까지 따내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터라 추가 메달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노민상 감독은 "선수에게 메달에 대한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한다. 다만 자기 기록을 단축시켰으면 좋겠다. 마지막 경기 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후회없는 경기를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선수촌에서 휴식을 취한 박태환은 오후에는 수영장에 나와 물 감각을 익히고 몸을 풀며 마지막 경기를 대비할 게획이다.

자유형 1,500m는 15일 저녁 예선이 끝나면 16일 하루는 쉰 뒤 17일 오전에 결승이 진행된다.

## min76@yna.co.kr

관련기사

<올림픽 열기타고 `몸짱열풍' 후끈>

<올림픽> 박태환 부모 "광고 20건 거절하고 왔다"

<올림픽> 수영 펠프스, 최고의 화제 선수

<李대통령도 `올림픽 삼매경'>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13 13:03 송고

####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링컨 등 후보군"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다음주부터 인원 ·시간 제한없다

尹당선인 "물기상승 장기화 대비...금리인상 취약층 피해 최

안철수 "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일 있었지 만...임기 끝까지 최선"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59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3**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u></u> 56 동재개 예열?

4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sub>∰ 41</sub> 힐예정"

5 [팩트체크]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계곡살인'을 검 

뭐하고 놀까? ##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별뉴스**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시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 앱
 보다시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90.1229 | 발행일자 199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v